

since 1955
CONTEMPORARY LITERATURE

現代文學

JULY 2014
VOL 715

2014-7

지상 전시 - 「이우환 베르사유」 전

인터뷰 특집 - 최수철

소설 구병모 송지현 이장욱 조해진

시 김신용 강해림 고재종 김경주 김 룡 김윤식 박형권 안희연 장요원 최 휘

에세이 김승희 남정욱 박주석 이재룡



「관계항—베르사유의아치 / Relatum—L'Arche de Versailles」,
“Lee Ufan Versailles”
© Lee Ufan, 국제갤러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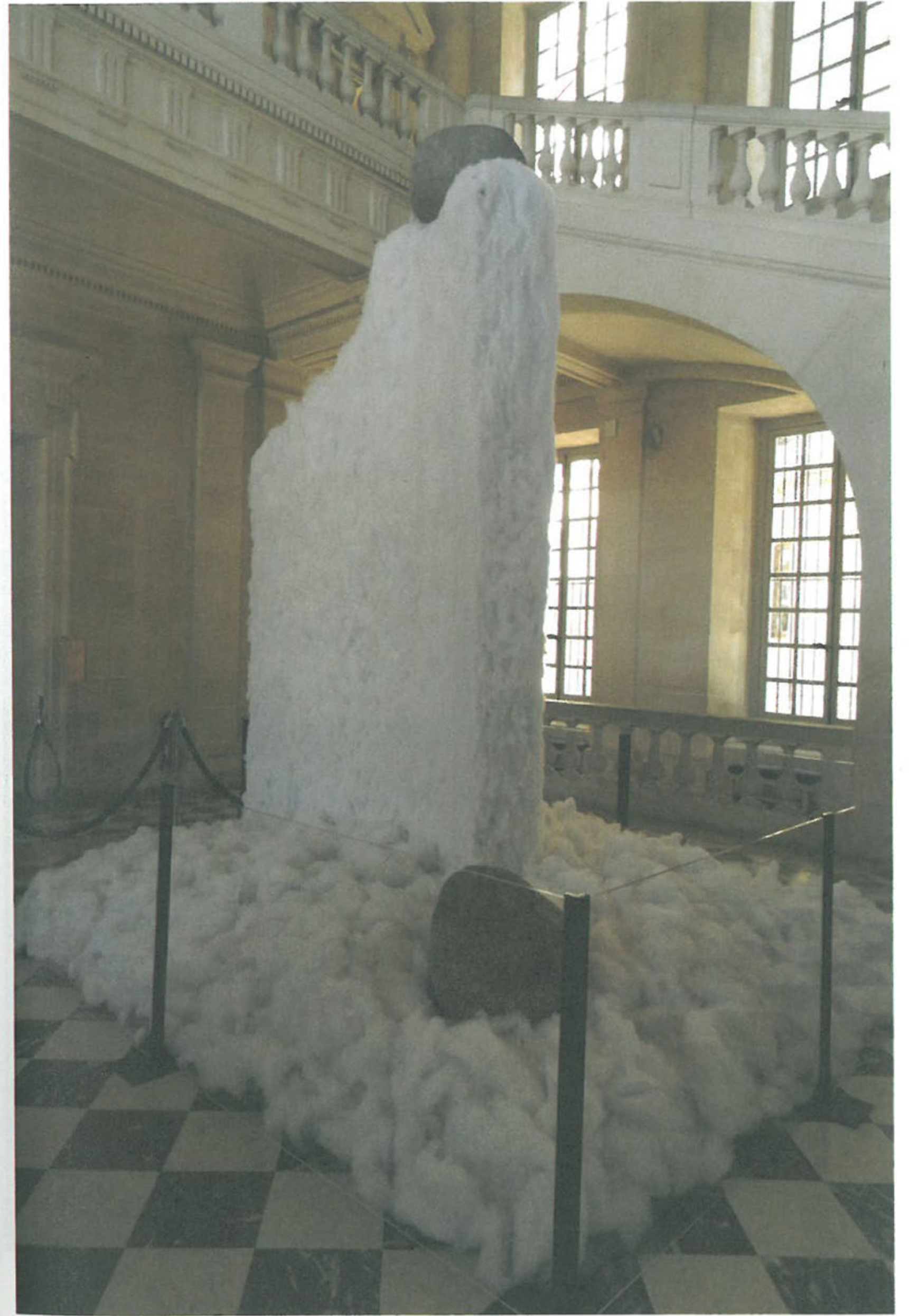
「관계항—대화 X / Relatum-Dialogue X」,
“Lee Ufan Versailles”
© Lee Ufan, 국제갤러리 제공



「관계항—별들의 그림자 / Relatum - L'ombre des étoiles」,
"Lee Ufan Versailles"
© Lee Ufan



「관계항—대화 Z / Relatum—Dialogue Z」,
“Lee Ufan Versailles”
© Lee U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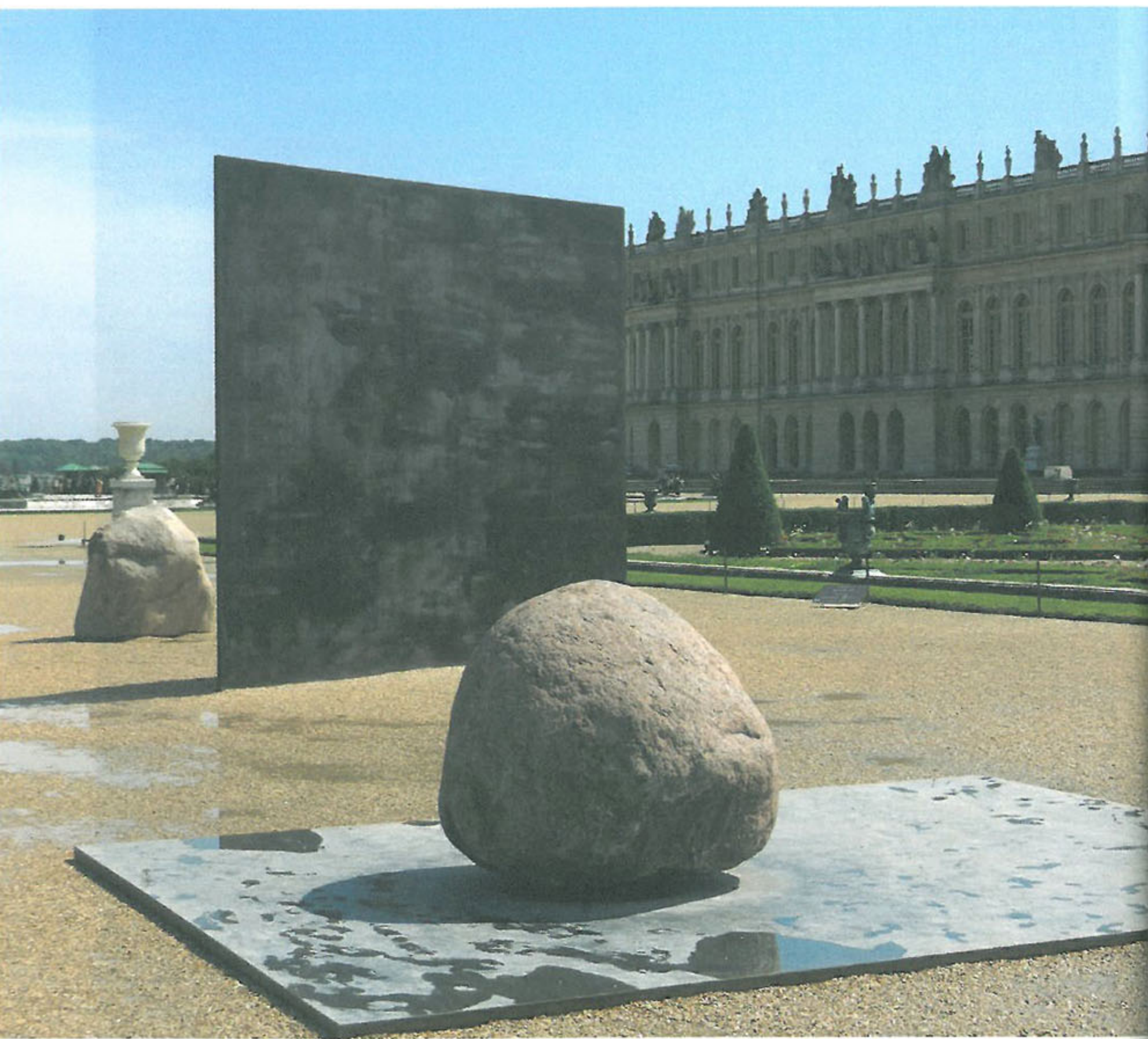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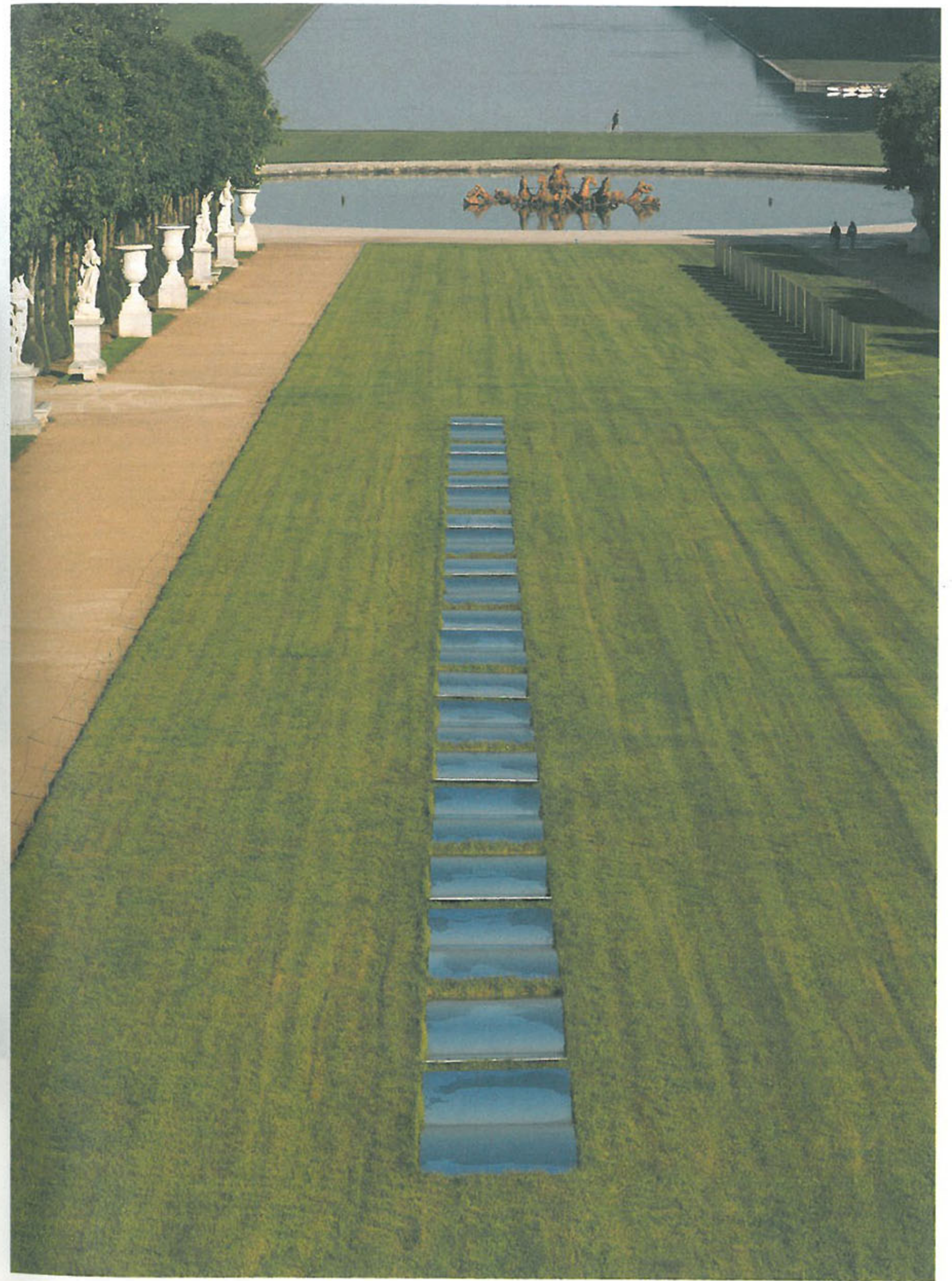
「관계항—베르사유의아치 / Relatum—L'Arche de Versailles」,
“Lee Ufan Versailles”, 사진2
© Lee Ufan



「관계항—거인의지팡이 / Relatum—The Cane of Titan」,
“Lee Ufan Versailles”, 사진3
© Lee U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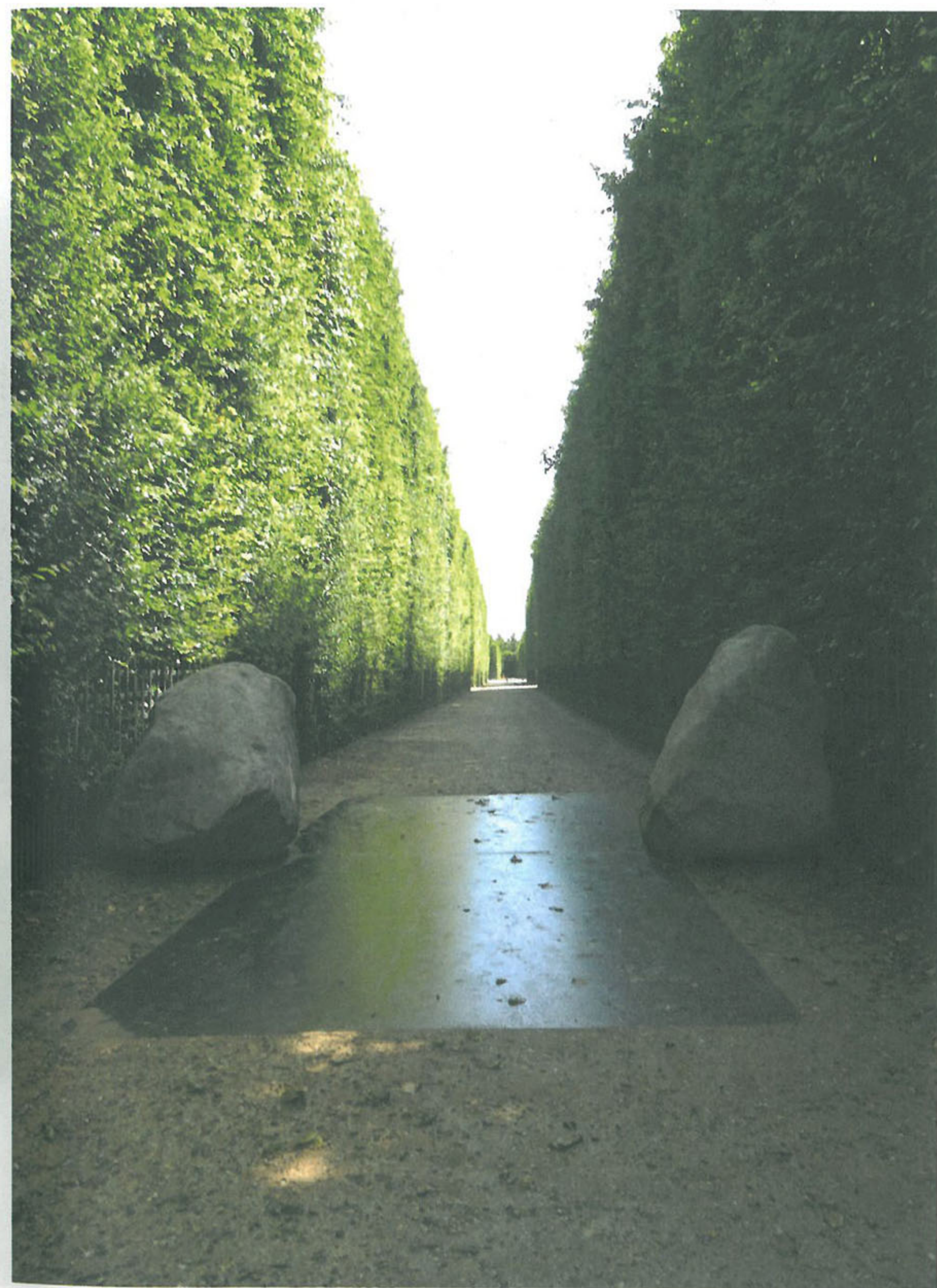
「관계항—대화X / Relatum—Dialogue X」,
“Lee Ufan Versailles”, 사진4
© Lee Ufan



「관계항—바람의 날개 / Relatum—Lames de vent, Relatum—Wavelength space」,
“Lee Ufan Versailles”, 사진5
© Lee Ufan



「관계항—대화 Z / Relatum - Dialogue Z」,
"Lee Ufan Versailles", 사진6
© Lee U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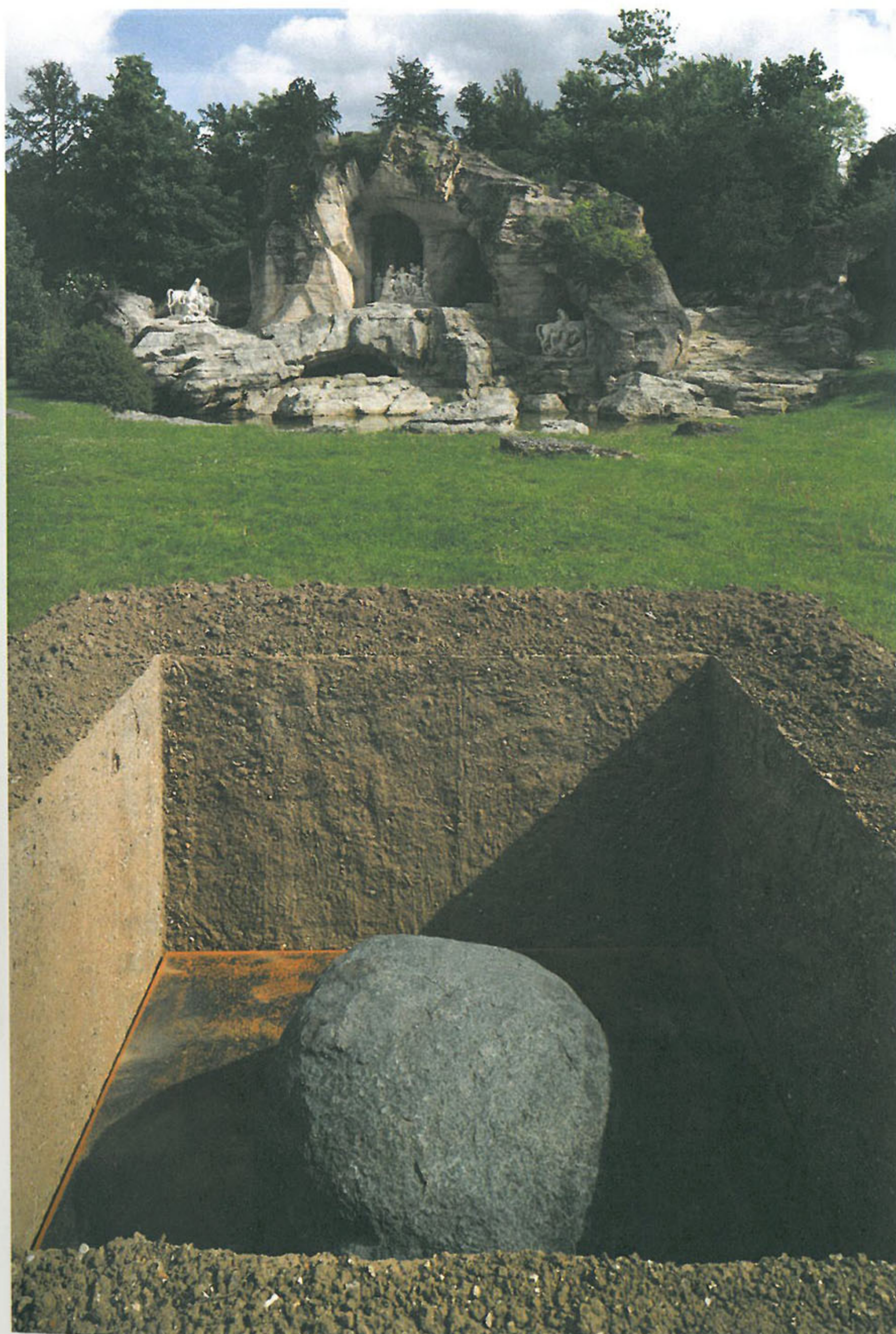
「관계항—대지大地的다리 / Relatum - Earth of the Bridge」,
"Lee Ufan Versailles", 사진7
© Lee Ufan



「관계항—사방四方의 메신저 / Relatum—Four sides of messengers」,
“Lee Ufan Versailles”, 사진8
© Lee Ufan



「관계항—별들의 그림자 / Relatum—L'ombre des étoiles」,
“Lee Ufan Versailles”, 사진9
© Lee Ufan



「관계항—무덤. 앙드레 르 노트르를 경애하며 / Relatum—La Tombe. Hommage à André Le Nôtre.」
“Lee Ufan Versailles”, 사진10
© Lee Ufan





「관계항—거인의 지팡이 / Relatum - The Cane of Titan」,
 “Lee Ufan Versailles”
 © Lee Ufan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우환과의 산책

심은록

※ 이 지상 전시의 전 작품들은 책 앞쪽 칼라 화보 면에 순서대로 실는다.



▲ 전시 작품 앞에 서 있는 이우환 © 심은록

베르사유 현대미술전의 초대 작가 이우환

“베르사유의 이우환은 폭풍 속의 강철 갈대이다”라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6월 8일자 인터넷판)는 「태양왕의 거처에서의 선zen 아트의 대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작하는 작가소개를 한다. 이 언급은 이우환의 예술에 관해서는 베르사유 전시 작품 중의 하나인 「관계항—바람의 날개」를 주목한 것이고, 작가의 삶에 관해서는 서구미술의 팝아트적 산업적 경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이뤄냈음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사유를 즐기는 작가의 철학적인 모습도 물론 포함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대하고 무거운 베르사유의 분위기에 작가가 제압당하지 않고 제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 아우라를 살려 자신의 예술성과 정신세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주요 일간지인 『르몽드』는 「장소를 재발견하기 위한 순수한 형태」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미니멀리즘적이고 심플한 작품이 베르사유 정원의 새로움을 느끼게 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완벽을 넘어서는 전시” “르 노트르 정원과의 대화” “강렬하며 동시에 정적인 열 개의 신작” “명상적인 작품” 등등 각 매체마다 다양한 관점에 초점을 맞춘 호평으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처럼 매스컴은 작품의 이성적이고 사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일반 관람객들은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다.

“놀라워요. 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하는 몸짓이 너무나 구체적이네요.” 「관계항—사방의 메신저」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한 여성 관람객의 말이다. 또 어떤 신사는 “세상에, 어떻게 저기를 감히 들어갈 수가 있나”라며 작품 「관계항—별들의 그림자」

안에서 포옹하고 있는 한 커플을 보고 놀란다. 신사는 젊은 커플이 마치 거룩한 성소를 범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더니, 기어코 손짓으로 그들을 나오게 한다. 이 작품이 신사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성소로, 젊은 커플들에게는 순결한 사랑을 표상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베르사유 궁에서 수만 가지 방식의 산책이 가능하듯이, 이우환의 작품도 그만큼 다양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추구해온 ‘양의兩義의 예술’이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2008년부터 ‘전통과 현대와의 대화’를 목적으로 현대미술전을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구대륙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의 무겁고 노쇠해진 듯한 전통에 젊음과 역동성을 주자는 의도이다.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가들인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주세페 페노네 등에 이어 올해는 한국 작가 이우환(1936-)이 초대되었다. 그는 1968년에 일어난 일본 ‘모노하’의 중심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파리 주드폼 미술관, 본 시립미술관, 서울 삼성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베네치아 비엔날레, 카셀 도쿠멘타 등 주요 국제전에 참여해왔으며 현재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6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는 「이우환 베르사유」 전에는 총 10점의 작품(실내 1점, 정원 9점)이 전시된다. 이우환은 관람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베르사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정원을 산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작품을 따라서

「관계항—솜cotton의 벽」(사진1) :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미

의 표상인 그리스로마 양식을 되살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된 가브리엘 건물(Aile Gabriel, 베르사유 궁전 건물 중의 하나) 실내에 설치된 이우환의 첫 번째 작품 「관계항—숨의 벽」을 찾아 들어간다. 실내 입구에서 멀리 맞은편으로 2층 건물의 내부가 보인다. 위층에는 이오니아식 원주colonne 네 개와 가브리엘 천사의 부조가 보이고, 아래층에는 남성성이 도드라지는 네 개의 도리아식 원주가 있다. 이 도리아식 원주 한가운데 머리장식 대신에 커다란 돌이 올려져 있는 이우환의 숨으로 된 원주 하나가 세워져 있다. 구대륙의 문화와 예술을 떠받쳐온 원주에 대한 비판적인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며 작품이 설치된 방으로 들어선다. 와! 원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벽'의 한 단면이었다. 작품은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이러한 착각을 유도한 것이다. 원래 사면이었을 벽은 시간이라는 거센 바람에 의해 무너지고 단 한 면만이 남아 있다. 이 한 면의 벽조차도 이미 허물어지고 있으며, 그 잔해(숨)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벽의 가장 높은 곳에는 육중한 자연석이 너무나 가깝히 앉아 있을 뿐이다. 벽 발치에는 또 다른 돌이 있는데, 그것은 벽 위에 있는 돌을 올려다보고 있다. 시선을 옮기는 순간, '아, 트릭이었구나!'를 깨닫는다. 이우환은 조각에 트릭을 사용하여 체제적인 가치관이나 기성관념을 비틀어 현실체제에 균열을 줌으로써 고정적인 시각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무위자연적인 돌과 숨 벽. 자연석이 숨 위로 저렇게 가깝히 올라왔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불가해한 분위기 때문이다.

「관계항—베르사유의 아치」(사진2) : 루이 15세의 왕실건축가 앙주 자크 가브리엘Ange-Jacques Gabriel이 건축한 건물에서 나와, 루이 14세의 정원으로 들어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조경설계사 앙드

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1613-1700)의 전형적인 프랑스식 정원이 펼쳐진다. 루이 14세(1638-1715/1643년 왕위 계승)의 "Nec pluribus impar"(모든 것 위에)라는 그의 신조처럼, 사람과 동물은 물론 자연까지도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르 노트르는 그리하여 인간의 개념을 완벽하게 표상한 정원을 만들게 된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작품 「관계항—베르사유의 아치」가 보인다. 높이 12미터와 길이 30미터의 스테인리스스틸로 된 아치의 양 끝 외면에는 두 개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아치가 수평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탄력성 있는 아치의 양 끝을 눌러주고 있다. 아치 가운데로는 아치와 똑같은 크기의 평평한 스테인리스스틸이 용단처럼 바닥에 깔려 있다. 그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아주 저 멀리 정원의 끝 쪽에서 또 다른 스테인리스스틸 용단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그것은 용단이 아닌 정원 끝에 있는 '인공 대운하'다! 스테인리스스틸 용단과 저 멀리 아득하게 있는 거대한 운하가 놀라울 정도로 모양과 색감이 일치한다. 작가는 그 둘이 마침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착각까지도 염두에 둔 것일까? 스테인리스스틸 판과 대운하는 묵묵히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엄청난 거리를 초월하는 친밀함으로 조용하고 있다.

'베르사유의 무지개'라고 불리게 된 이 작품은, 베르사유의 위용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빛나는 이우환의 전시 작품들이 보여주게 될 '조화'와 '소통'의 개념을 예고하고 있다.

「관계항—거인의 지팡이」(사진3) : 정원의 중앙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아치의 왼쪽 방향에 있는 두 개의 작품이 시선에 들어온다. 거대한 돌 위에 올려놓은 어떤 거인의 지팡이다. 지팡이의 무게(?) 때

문인지 돌이 지팡이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쉽 없이 여행해야 하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일까? 문명의 독기를 치유하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일까? 혹은, 방황하는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사막을 40년간 배회했던 모세의 지팡이일까?

문득 나오시마섬의 이우환 미술관에 설치된 같은 이름의 조각 「관계항—거인의 지팡이」가 떠오른다. 두 작품의 기본적인 콘셉트나 구성은 같지만, 그 느낌은 서로 전혀 다르다. 나오시마의 지팡이는 바다의 무한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해변가의 풀밭에 놓여 있다. 밝은 회색의 둥그스름한 자연석 위에 걸쳐진 지팡이(철봉)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무게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굽어지고 휘어졌다. 주인이 지팡이를 돌 위에 걸쳐놓곤 잊어버린 채 바다로 떠난 것일까? 베르사유의 지팡이는 좀 더 검고 선명하며 직선의 깨끗함이 그대로 살아 있다. 지팡이가 의연하게 놓여진 검은색 바탕에 하얀 무늬가 살짝 비치는 돌도 세련되고 날렵해 보인다. 그래서 베르사유의 「관계항—거인의 지팡이」는 주변에 있는 고상한 건물, 우아한 분수, 화사한 화단 등의 색깔이나 느낌과 잘 어울린다. 나오시마의 지팡이를 보면서 공자, 맹자의 동양 선인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베르사유의 지팡이를 보면서도 흥미롭게도 자연스럽게 서양의 신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양쪽 작품에서 모세만큼은 모두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히브리인인 모세가 아프리카(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공통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오시마의 작품에 붙인 같은 제목의 '거인의 지팡이'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기의 두 작품이 나오시마 작품의 연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다. 작품이 놓인 장소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관계항—대화 X」(사진4) : 「관계항—거인의 지팡이」 지척에 놓여 있는 「관계항—대화 X」는 두 쌍의 자연석과 철판들로 구성된다. 사각형의 커다란 철판이 당당하게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돌이 대응하듯 깨끗하게 놓여 있다. 둘 관계에 긴장감이 돈다. 이 긴장된 커플 옆에 있는 또 다른 커플은 반대로 느긋하다. 철판은 땅바닥에 철판 퍼덕 누워 있고 성격 좋아 보이는 둥그스름한 자연석은 철판 위에 앉아 있다. 절제된 우아함을 지닌 베르사유 궁이 병풍처럼 이 작품의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또한 그 옆에는 초목과 꽃으로 장식된 아라베스크 문양의 정밀하게 잘 짜여진 화단과 그 주변에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된 마름모 형태의 정교하게 재단된 나무들이 보인다. 완벽한 좌우대칭 형태로 비례, 균형, 조화가 뛰어난 프랑스 고전양식의 건물, 자연이면서 절대로 자연 같지 않은 인간적 콘셉트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식 화단,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돌, 공장에서 생산한 산업사회의 상징인 철판이 기묘하게 교감하고 있다. 눈을 잠시 감고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떠올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조화가 불가능한 이질적인 풍경이지만, 눈을 다시 뜨고 풍경과 작품을 보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끌어당기는 기류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다. 그 기류가 서로를 묘하게 어울리게 한다. 그래서일까? 많은 외국 대중매체들도 베르사유 궁과 화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 「관계항—대화 X」의 사진을 신문지상에 즐겨 게재한다. 뭔가 어긋나는 듯하면서도 조화의 극치를 이루는, 베르사유 궁 전면을 감싸고 있는 기류가 만들어내는 숭엄한 울림이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항—바람의 날개」(사진5) : 다시 아치가 있는 곳으로 와서 중앙계단을 타고 내려간다. 공사 중인 분수대를 지나, 인공 대운하

를 향하여 산책을 계속한다. 대운하로 가는 길 중앙에는 잔디로 된 긴 '녹색 융단'이 펼쳐진다. 잔디는 일정한 키로 잘 손질되어 있고, 그 위로 완만하게 굴곡진 40개의 스테인리스스틸 판으로 구성된 「관계항—바람의 날개」가 놓여 있다. 프랑스는 평지가 많고 땅이 비옥하며 날씨까지 은혜로운 축복받은 나라이다. 넓은 평야에 밀밭이나 초원 등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바람이 불면, 이 풀들은 파도타기를 하듯 차례차례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바람의 세기(바람 부는 범위)와 속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풀들에 의해 결코 보이지 않는 바람의 모습이 시각화된다. 바로 이 장면이 「관계항—바람의 날개」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스무 개의 스테인리스스틸 판은 잔디밭 위에 물결이 이는 것처럼 누워 있고, 미풍의 흐름을 시각화한 또 다른 스무 개의 스테인리스스틸 판은 멀찌감치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미풍은 대운하로 이어지며 잔잔한 파도처럼 바람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바람이 되어 물결이 되어 이 작품은 아치와 대운하를 그렇게 연결해준다.

「관계항—대화 Z」(사진6) : 대운하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태양 왕 루이 14세의 수호신인 아폴론 신의 분수를 만난다. 동서남북 사방세계에 골고루 햇빛을 비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아폴론은 네 필의 말이 끄는 태양전차를 몰고 있다. 물빛이 햇빛처럼 튕겨나간다. 이 분수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고, 그 가운데 가로수가 양옆으로 우거진 산책길이 있다. 이우환 작업의 특성을 드러내는 재료인 철판과 자연석이 보인다. 부드럽게 굴곡진 철판은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자연석 하나가 놓여 있다. 완만한 태극 문양을 입체화시킨 것처럼 철판의 반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반은 볼록하게 나와 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오롯이 앉은 자연석은 철판을 향

해 머리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철판은 부드럽게 자연석을 감싸 안듯 오목하게 휘어져 있다. 철판 뒤로 가보니 또 다른 자연석이 앞의 자연석과 같은 포즈로 앉아 있으며, 다른 하나의 철판도 돌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다. 우주 안에 그들만의 유일한 공간인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의 심오함이 가득 서린 정경이다.

「관계항—대지의 다리」(사진7) : 좁은 산책로를 따라가면 양쪽에 울창한 나무들이 높은 벽처럼 균일하게 재단되어 있다. 이 오솔길은 상당히 길고 곧아서 저 멀리 나무 위로 뻗어 있는 소실점이 보인다. '대지의 길'과 같은 폭과 길이를 지닌 '하늘의 길'이 이 소실점에서 만난다. 이 소실점을 향해서, 잘 정돈된 울창한 나무들이 뻗뻗하게 줄지어 선 이 길 위에 철판이 길게 누워 있다. 철판 끄트머리 위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자연석은 철판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오른쪽 돌은 나무 담에 편안히 등을 기댄 채 앉아 있고, 맞은편의 돌은 몸을 다소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 자로 잰 듯한 대지의 길과 하늘의 길이 공존하는 곳에 갑작스런 두 개의 커다란 돌과 철판의 출현으로 직진하던 공기와 바람도 돌아가야 한다. 소실점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도 흠칫하며 작품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앞을 향한다. 그런데 여행객들은 철판과 돌의 돌연한 출현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쓰다듬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철판과 돌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쳐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우환의 작품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베르사유 정원의 일부로 생각된 때문일까? 이우환의 예술의 양의적인 관점이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표출되고 있다.

「관계항—사방의 메신저」(사진8) : 네 개의 길이 한곳에서 만난

다. 네 개의 돌이 각각 동서남북에서 와서 이곳에서 우연히 마주하고 있다. 이 돌들은 처음에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을지도 모른다. 이 네 개의 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상당히 흥미롭다. 하나의 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돌은 귀를 잔뜩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돌이 하나의 돌을 향해 모두 집중해서 머리를 기울이고 있다. 말하는 돌은 자신의 엄청난 무용담을 전하는 듯 의기양양하고, 이를 듣는 세 개의 돌의 모습은 천양지차다. 네 개의 돌은 각각 철판의 한쪽 끝에 앉아 있다. 신드바드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양탄자 같은 철판은 이미 흠에 거의 묻혀가고 있다. 전시가 끝날 때쯤에는 철판은 보이지 않고 네 개의 돌만 보일 것 같다. 이들의 대화는 오래전 시작된 것일까? 이 돌들 옆에 앉아 있으면 이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들릴 듯하다. 바로 이같이 돌 자체가 갖고 있는 표현력이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해 작가는 그들과 수없이 대화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그들은 그 장소와 공간의 주인공들이 되어 그들만의 얘기를 나누게 됐으리라.

「관계항—별들의 그림자」(사진9) : 산책은 작은 숲 속으로 이어진다. 베르사유 정원의 나무는 삼각형, 네모, 원형의 자를 대고 손질해서 그것들은 수학 도형들을 연상하게 한다. 물론, 잔디도 일정한 키로 말끔하고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다. 「관계항—별들의 그림자」가 있는 '보스케'(작은 숲)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그곳은 웬 일인지 풀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자라나 있어 여기가 정말 베르사유인지 의아하다. 두리번거리다가 보스케 한복판에 둥근 형태로 세워져 있는 「관계항—별들의 그림자」의 나지막한 담을 발견한다. 40여 개의 산화된 철판으로 구성된 담이다. 각기의 철판 사이에 한 사

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틈을 비워둔 둥근 형태의 담장이다. 거친 세월을 버티어온 듯한 철판 담장 너머에서 한낮의 사막처럼 햇살을 부숴놓은 것 같은 하얀빛이 발산된다.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하얀 빛의 신비로움 때문에 담장 안은 성소처럼 더욱 신성하고 정결해 보인다. 발을 선뜻 들여놓기가 주저되는 성역 같은 담장 안이다. 그곳, 하얗고 작은 돌들이 고르게 깔린 바닥에 커다란 일곱 개의 자연석이 놓여 있다. 일곱 개의 돌들은 베르사유의 다른 곳에 설치된 돌들과 달리, 내면으로부터 배어 나온 흰빛이 감돈다. 마치 밤하늘의 하얀 별들이 잠시 이곳에 쏟아져 내려와 있는 것 같다. 그 돌들은 별처럼 자신들의 그림자를 원하는 수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떤 돌은 두 개, 어떤 돌은 세 개의 그림자를 만든다. 모두가 그 돌, 아니 그 별들의 그림자이리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위로 태양의 그림자가 때때로 겹쳐진다.

「관계항—무덤. 앙드레 르 노트르를 경애하며」(사진10) : 이우환의 열 번째 작품이 있는 아폴론 신의 작은 숲으로 들어간다. 커다란 동굴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전 같은 동굴 안에는 거대한 원주들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다. 동굴 입구의 가운데에 아폴론 신이 앉아 있다. 여섯 명의 님프가 아폴론을 둘러싸고 있으며, 한 님프는 신의 다리에 물을 붓고, 다른 님프는 조심조심 부드러운 천으로 신의 목욕을 돕고 있다. 그리고 이 동굴의 양쪽 끝에 아폴론의 말이 보인다. 조금 전 '아폴론 분수'에서 보았던 아폴론과 네 필의 말이 세상을 돌고 나서, 이곳으로 돌아와 더위를 식히며 목욕을 하나 보다. 아폴론은 태양을 상징하듯 생명과 기쁨의 신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신전 앞에 고분을 해체해놓은 듯한 심상치 않은 네모반듯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조심스레 다가서서 그 밑을 내려다보니 사각형 구

명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철판이 밑바닥 깊이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철판 위에는 유달리 단단해 보이는 육중한 몸집의 돌이 자리 잡고 앉아 있다. 보는 이들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이 숨을 죽이게 하는 이 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한 듯한 철판 위에 몸을 내려놓고 있다. 지난 삶에 바치는 송가를 부르고 있거나, 영면을 위한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지도 모른다. 조금 전에 「관계항—별들의 그림자」의 돌들이 별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이 돌은 마치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것같이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모습이다. 이 무언의 제의식 같은 작품을 끝으로 우리의 산책도 어느덧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우환의 전시 작품들은 모두가 '관계항'으로 시작하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소통'을 통한 관계의 개념을 형상화시킨 것들이다. 베르사유를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연과, 돌, 철판 그들의 위대한 침묵이 어우러진 소통으로 그 시간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리라.

마지막에 소개한 두 작품인 「관계항—별들의 그림자」와 「관계항—무덤. 앙드레 르 노트르를 경애하며」를 보며, 이우환 작가는 지금까지 그의 작품들과 달리 어떻게 위의 두 작품에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분위기가 스며들었는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우뚱한다. 작가의 의식은 그의 신체가 베르사유의 사물, 정신, 역사, 더 나아가 르 노트르, 루이 14세 그리고 루이 14세의 예술가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대화를 해왔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아폴론 신의 현현으로 생각할 만큼 그리스 신화를 사랑하고 로마 황제들을 존경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는 수많은 신화 속의 그리스 신들이 회화, 조각의 형태로 부활했으며,

'거울의 방'에는 로마 황제들의 흉상이 진열되었고, 또한 정원의 수많은 조각들과 분수도 그리스로마 신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우환의 작품은 아틀리에에서 구상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시장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시장을 수없이 배회하며 작품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설치하면서 마지막까지 전시장과 대화의 대화를 계속한다. 지나치게 현대화되고 논리적이며 인간중심주의적인 '의식'보다는, 이우환은 내부와 외부의 매개체인 '신체'를 통해 주변과 대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종종 "신체는 바깥과 연계된 여러 신체의 일부이며, 신체라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 꽃, 나무, 대지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의 신체는 의식이 알아채기도 전에 베르사유의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제 그 대화의 신비가 열 개의 세기의 걸작으로 남게 되는 역사적인 작품들을 완성시킨 것이다. ●

심은록 1962년 충북 출생.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철학·인문과학 박사.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역임. 저서 『나비왕자의 새벽작전—장 미셀 오토니엘의 예술세계』 『내 머리 속의 섬』 『Why them?』 『양심의 예술』(대담집) 등. 현재 프랑스에서 미술비평가 및 예술부 기자로 활동.